

DESIGN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꾼다

2013년 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4분기 실적 및 '14. 1분기 전망)

2014. 01.

한국디자인진흥원

K I D P

www.designdb.com

본 보고서는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체감경기를 조사하여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경영활동별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동향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연구자 고유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본 자료는 www.designdb.com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

산업연구원 김홍석
02-3299-3056

thomaskim@kiet.re.kr

차 례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13년 4/4분기 현황 및 '14년 1/4분기 전망)	4
요약	5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8
1.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8
2. 2014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14
3.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20
II. 4/4분기 국내·외 디자인업계 주요 이슈	21
III. 부록	29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29
2. 2013년 4/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32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34
4. 산업일반 통계자료	39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1. 2013년 4분기 한국경제와 디자인산업

올해 들어서서 3/4분기까지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디자인 경기가 4/4분기부터 다시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 4/4분기에는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 디자인 경기실적과 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4/4분기 조사결과를 보면 다른 해와 달리 그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경제 전망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와 중국경제의 완만하지만 회복세 지속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국내 경제도 올해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산업의 수출 등 대외부문과의 연계성 취약과 높은 내수 의존도라는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대외여건이 개선되고 수출경기가 호조를 지속한다고 하여도 내수 회복세가 크지 않으면 디자인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수년 동안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업계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2. 국내 경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올해 GDP 성장률이 7월 전망과 동일한 2.8%를 보이고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소비와 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3.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높아진 성장률 전망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업계의 주요한 수요부문의 경기에 대한 체감이나 전망은 반드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먼저 제조업부문의 경우 제조업체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지난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후 12월에도 전월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78을 기록함으로써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특히, 대기업(82→79)의 하락폭이 중소기업(74→72)보다 컸고 내수기업의 체감경기(79→75)가 수출기업(78→77)보다 더 심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 2014년 1월 업황 전망치가 상승세로 전환되고, 연간 전체 업황 전망 BSI도 올해 실적 BSI(78)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88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지수 수준이 여전히 기준선이 100을 크게 밑돌고 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나 체감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경기의 경우 한

국건설산업연구원의 ‘201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은 거시경제 및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주도의 수주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감소로 전체적으로 100조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등 건설투자가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회복세에 그치는 등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광고부문의 경우 이는 국내외 경제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경기회복의 기대감 속에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맞아 광고주의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2014년 종합 ‘광고경기 예측지수(KAI ; Korea Advertising Index)’가 111.4로 나타나는 등 2013년 대비 소폭 신장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신장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식음료 및 기호식품, 화장품 및 보건용품, 출판 및 교육, 수송기기, 가정용품, 증권 및 자산운용, 서비스 등의 업종 정도가 상대적으로 광고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종간 명암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의 경우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인 107에 머물른 것에서 보듯이 이 역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수요부문이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디자인 부분에 대한 투자 역시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케 한다. 또한 완만한 시장 증가세는 그만큼 디자인 업계에 대해 새로운 시장 개척, 내부 효율성 증대과 구조조정 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디자인 경기

전문디자인업의 4/4분기 경기지수(D-BSI)는 67.6p로 전분기 73.8p에 비해 6.2p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분기 56.2p에 비해서는 11.5p 상승하였다. 디자인 경기지수가 지난 2/4분기에 74.2p로 201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이후 3/4분기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후 4/4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올해 들어서서히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였던 디자인경기가 다시 침체 늪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통계청 3/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도 80.6p로 전분기 95.6p에 비해 15.0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4.7p에 비해서도 23.1p 하락하였다.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2010년 이후 서비스총생산지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특히 3/4분기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의 경우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서비스총지수와 격차도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문디자인업계가 전체 서비스업 발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문으로 기업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디자인업계의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인테리어디자인업만 유일하게 74.7p로 전분기 68.4p에 비해 상승한 반면, 나머지 업종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제품디자인업은 60.3p로 전분기 78.6p에 비해 18.3p라는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기타전문디자인업도 58.7p로 전분기의 71.9p에 비해 13.2p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전문디자인시장은 제품디자인업(29.4%), 인테리어디자인업(29.1%), 시각디자인업(26.4%) 그리고 기타전문디자인업(15.1%) 비율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는 전체 디자인 시장의 70% 이상의 경기실적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과 경인권, 동남권 등은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 다시 경기 지수가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전문디자인산업의 차별적인 모습은 지역 간 서로 다른 산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디자인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권역의 전문디자인산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4/4분기에 자금사정지수를 제외하고는 매출지수, 채산성지수, 인력사정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전분기의 경우 매출지수와 인력사정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중에서도 채산성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 지수마저 하락함으로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분야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지수 하락세 중에 자금사정지수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디자인업계에 대한 자금공급사정이 좋아졌다고 보다는 경기불안으로 인한 디자인업계의 투자 위축과 자금수요 하락 등 수요부문의 요인에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업종, 지역, 분야를 불문하고 전문디자인업계의 경기가 악화된 이유는 내수부진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확실한 경제상황(30.7%),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19.2%) 그리고 경쟁심화(14.1%), 자금부족(1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경기 악화가 70% 정도 수요부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다만, 경기실적의 호조를 보인 인테리어디자인업의 경우 내수회황(30.4%) 외에 정부경기부양책(14.9%)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문디자인업의 2014년 1/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83.0p로 전분기 105.6p보다 22.6p 하락하였다. 전년 동분기 81.7p에 비해서는 상승하였지만 상승폭이 1.3p에 그치고 2011년 이후 4/4분기 전망치 수준인 81p~82p 수준에 머물러 매년 나타나는, 전문디자인업계의 차년도 경기에 대해 불안해하는 모습이 올해도 반복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분기의 경우 하락한 업종이더라도 모두 기준수준 100이 넘었지만 이번 전망조사에는 모두 100 이하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다른 해에 비해 더 나빠졌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3/4분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서 경기전망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각디자인업(26.7p), 기타전문디자인업(21.1p), 제품디자인업(19.0p), 인테리어디자인업(5.4p) 순으로 하락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시각디자인업과 제품디자인업은 전년 동분기에 비해서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기타권역(강원/제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전문디자인산업의 경우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서울지역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권역이나 지역보다 서울지역의 디자인 경기전망이 전국 디자인 경기전망을 대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4분기에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지역의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 99.0p로부터 전년동분기 지수 수준 80.1p와 비슷한 수준인 81.3p로 크게 하락한 것은 잠시 되살아나던 디자인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다시 냉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 매출지수, 채산성지수, 인력사정지수, 자금사정지수 모두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매출지수와 인력사정지수는 전년동기수준에 비해서도 하락하였다. 인력사정지수는 인력채용의 어려움보다는 시장상황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전문디자인업계, 수요부문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디자인업계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내년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수부진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불확실한 경제상황(29.8%),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23.3%), 경쟁심화(12.8%), 자금 부족(12.4%) 순으로 나타나 경기 실적 악화 요인이 그대로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요인을 보면, 소비재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기타전문디자인업이 내수부진 어려움과 계절적 요인이, 인테리어디자인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경쟁심화의 경우 기타전문디자인업계와 시각디자인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9인 이하 상대적으로 영세한 업체와 10인 이상의 규모가 큰 업체 모두 전체 응답과 유사한 응답 패턴을 보였으나, 10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경쟁심화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위축되고 있는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과 충청권, 대경권, 기타권의 경우 내수부진의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동남권의 경우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 다소 대조를 보였다.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의 경우 서울권과 충청권이 특히 높게 나타났는데, 비수기 등 계절적인 요인이 내수부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4. 요약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내수경기도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디자인 수요부문의 경기 회복은 빠른 속도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도 디자인 경기의 경우 올해보다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요부문의 성장 제약으로 인해 큰 폭의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번 4/4분기 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업종, 지역, 분야 그리고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전체 디자인 업계가 내년도 1/4분기 경기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부정적인 정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전년도와 같이 4/4분기마다 반복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하겠지만 디자인업계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디자인업계 내부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자인산업은 전형적인 기업대상 서비스업(B2B 서비스업)으로 수요부문의 활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인 활용비중이 높은 경우 수출경기과 디자인경기 간 연계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디자인업계에 자연스럽게 내수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내수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디자인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내부자원이 취약하여 디자인업계 내수를 구성하는 중소기업의 디자인 수요 탄력도가 약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전체적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낮아짐에 따라 향후 내수시장 성장세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의 디자인활용 촉진 등 내수의존도를 고려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디자인업계의 경기 회복 관점에서 벗어나 디자인업계의 중장기 성장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디자인업계와 정부 모두 기본적으로 내수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김홍석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요 약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현황

4분기 경기현황지수는 **67.6p로 전분기(73.8p)대비 6.2p 하락**

● 업종별

상승: 인테리어디자인업(68.4p→74.7p △6.4p)

하락: 제품디자인업(78.6p→60.3p ▽18.3p), 시각디자인업(74.5p→72.7p ▽1.8p), 기타 전문디자인업(71.9p→58.7p ▽13.2p)

● 지역별

상승: 충청지역(90.0p→101.1p △10.1p), 호남지역(62.5p→67.9p △5.4p), 대구·경북 지역(82.5p→83.2p △0.7p), 강원·제주지역(90.9p→101.2p △10.3p)

하락: 서울지역(70.8p→64.5p ▽6.3p), 경인지역(61.9p→50.6p ▽11.3p), 부산·울산·경남지역(90.5p→82.7p ▽7.8p)

● 경영부문별

상승: 자금사정 (73.7p→77.0p △3.3p)

하락: 매출 (75.7p→74.8p ▽0.9p), 채산성 (75.1p→67.2p ▽7.9p), 인력사정 (82.6p→67.4p ▽5.2p)

● 4분기 경기 호전 이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53.5%), ‘내수활황’ (20.9%) 순으로 나타남

● 4분기 경기 악화 이유

‘내수부진’ (37.7%), ‘불확실한 경제상황’ (30.7%)으로 나타남.

2. 2014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전망

1/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3.0p로 전분기(105.6p) 대비 22.6p 하락**

● 업종별

하락: 제품디자인업(110.0p→91.0p ▽19.0p), 시각디자인업(110.1p→73.4p ▽26.7p), 인테리어디자인업(90.8p→85.4p ▽5.4p), 기타전문디자인업(108.8p→87.7p ▽21.1p)

● 지역별

상승: 강원·제주지역(72.7p→81.3p △8.6p)

하락: 서울지역(99.0p→81.3p ▽17.7p), 경인지역(99.0p→76.1p ▽22.9p), 충청지역(126.7p→88.8p ▽37.9p), 대구·경북지역(117.5p→107.8p ▽9.7p), 호남지역(110.0p→75.5p ▽34.5p) 부산·울산·경남지역(114.4p→91.3p ▽23.1p)

● 경영부문별

하락: 매출 (104.7p→83.3p ▽21.4p), 인력사정 (104.3p→87.1p ▽17.2p), 채산성 (104.6p→80.7p ▽23.9p), 자금사정 (103.3p→81.7p ▽21.6p),

● '14년 1분기 경기 전망 호전 이유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35.5%), ‘내수활황’ (32.4%) 순으로 나타남

● '14년 1분기 경기 전망 악화 이유

‘내수부진’ (37.0%), ‘불확실한 경제상황’ (29.8%) 순으로 나타남

3.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불변지수) 변화 추이

구분	2013 1/4분기	2013 2/4분기				2013 3/4분기					
	평균	4월	5월	6월	평균	7월	8월	9월	평균	10월*	11월*
전문디자인업	87.9	99.7	110.3	76.7	95.6	88.6	62.6	90.7	80.6	95.0	95.6
서비스업 전체	102.9	105.4	107.6	107.0	106.7	105.4	105.4	105.4	105.4	107.5	107.1

* 10,11월은 잠정치

II. 4/4분기 국내·외 디자인업계 주요 이슈

- 한영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개최(2013.12.18.~22)
- 11월 14일,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KUD)’ 창단, 국내최초 업사이클 디자인 전시회도 개최
- 국가산업단지 우수디자인 선정제 도입
- 10월 29일, 제1회 세계디자인정책포럼 개최
- 정부, 기업 디자인 활용률 2020년 20%대로...‘디자인 혁신 2020 프로젝트’ 착수
- 파리 루브르박물관서 ‘파리 루브르 한국디자인상품전’ 개최

III. 부록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2. 2013년 4/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4. 산업일반 통계자료

I.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1.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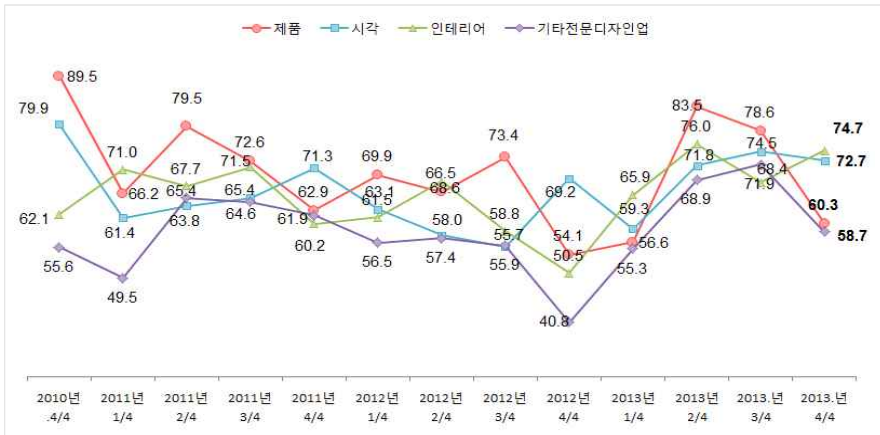
디자인산업 경기 종합



● (경기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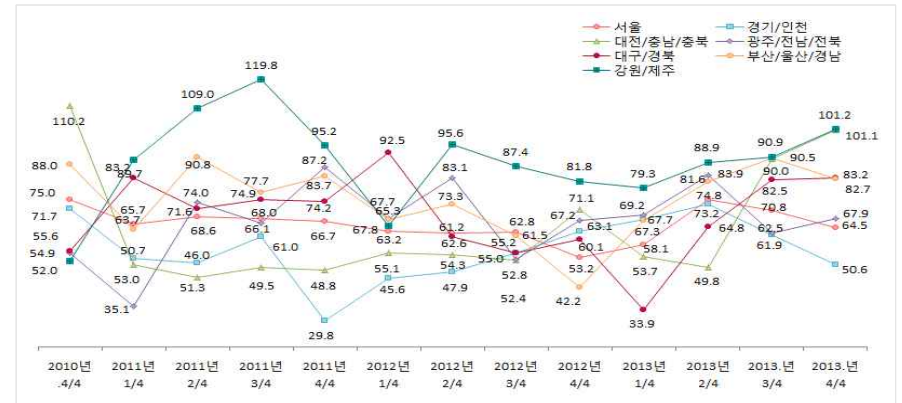
전문디자인업의 4/4분기 경기지수(D-BSI)는 67.6p로 전분기 73.8p 보다 6.2p 하락하였고, 전년 동분기 56.2p 대비 11.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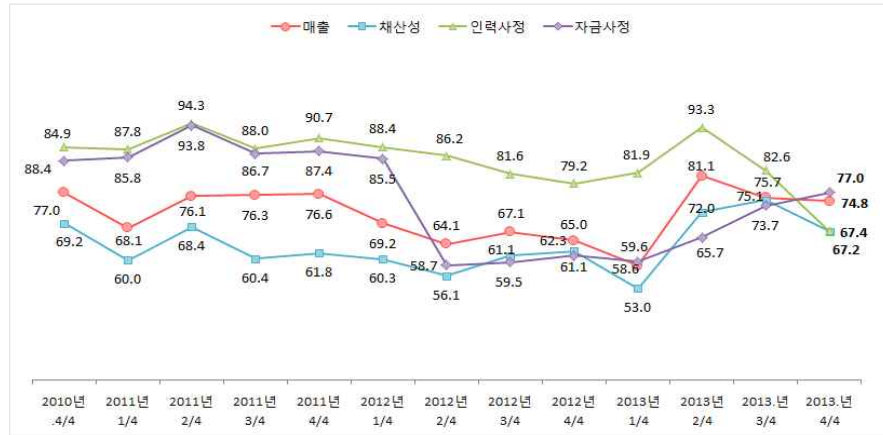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60.3p로 전분기 78.6p 대비 18.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4.1p 대비 6.2p 상승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72.7p로 전분기 74.5p 대비 1.8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9.2p 대비 3.5p 상승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74.7p로 전분기 68.4p 대비 6.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50.5p 대비 24.2p 상승하였음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58.7p로 전분기 71.9p 대비 13.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40.8p 대비 17.9p 상승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64.5p로 전분기 70.8p 대비 6.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53.2p 대비 11.3p 상승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50.6p로 전분기 61.9p 대비 11.3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3.1p 대비 12.5p 하락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01.1p로 전분기 90.0p 대비 10.1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1.1p 대비 30.0p 상승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67.9p로 전분기 62.5p 대비 5.4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7.2p 대비 0.7p 상승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83.2p로 전분기 82.5p 대비 0.7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0.1p 대비 23.2p 상승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82.7p로 전분기 90.5p 대비 7.8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42.2p 대비 40.5p 상승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101.2p로 전분기 90.9p 대비 10.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81.8p 대비 19.4p 상승하였음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 현황



- (매출) 매출지수는 74.8p로 전분기 75.7p 대비 0.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5.0p 대비 9.8p 상승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67.2p로 전분기 75.1p 대비 7.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9.2p 대비 20.2p 하락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67.4p로 전분기 82.6p 대비 5.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9.2p 대비 11.8p 하락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77.0p로 전분기 73.7p 대비 3.3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61.2p 대비 8.8p 상승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4분기 경기 호전 이유



- 4분기 경기 호전 이유로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53.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활황’ (20.9%), ‘경기부양정책’ (7.5%), ‘자금난 해소’ (6.9%), ‘인력난 해소’ (6.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은 시각(66.5%) 업체에서 더욱 높았고, ‘내수활황’은 인테리어디자인(30.4%)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내수활황	정부경기 부양책	기타	자금난 해소	인력난 해소
전체		53.5	20.9	7.5	7.4	6.9	6.5
업종	제품	48.0	52.0	8.3	4.8	0.0	0.0
	시각	66.5	5.9	3.5	3.5	17.1	3.5
	인테리어	33.7	30.4	14.9	13.7	0.0	7.3
	기타전문디자인업	55.3	6.6	6.4	11.4	0.0	20.4
규모	9인 이하	58.2	21.8	6.8	5.3	5.1	6.0
	10인 이상	35.1	17.2	10.4	15.3	13.7	8.2
권역별	서울	54.0	19.5	2.9	8.1	7.3	11.0
	경기/인천	61.6	19.2	19.2	0.0	0.0	0.0
	대전/충남/충북	40.2	16.1	13.7	16.1	13.7	0.0
	광주/전남/전북	70.9	14.2	14.9	0.0	0.0	0.0
	대구/경북	48.0	16.9	16.5	0.0	18.6	0.0
	부산/울산/경남	52.4	31.8	15.7	0.0	0.0	0.0
강원/제주	49.4	50.6	0.0	23.0	0.0	0.0	

4분기 경기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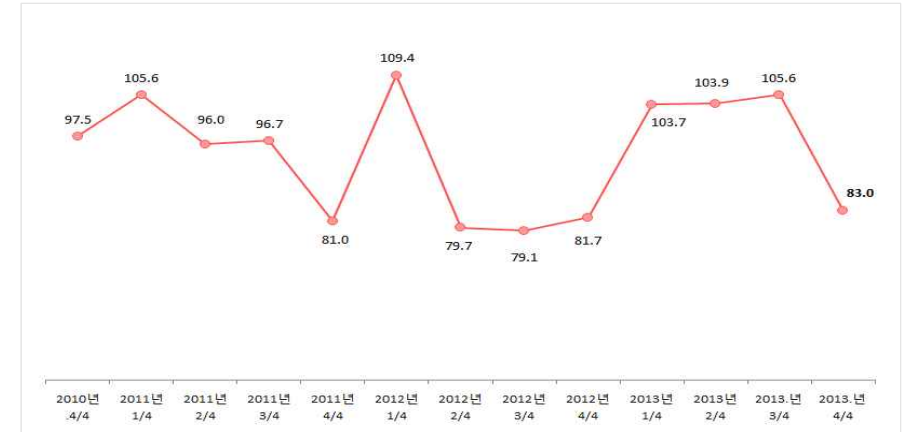
- 4분기 경기 악화 이유로 ‘내수부진’ (37.7%)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30.7%)으로 나타남. 이어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19.2%), ‘경쟁심화(14.1%)’, ‘자금부족’ (13.1%), ‘인건비 상승’ (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대부분의 계층에서 ‘내수부진’ 응답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테리어 업종에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43.9%로 가장 높음

(단위:%)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경쟁심화	자금부족	기타	인건비 상승	인력난
전체		37.7	30.7	19.2	14.1	13.1	5.8	2.7	2.4
업종	제품	38.8	28.8	16.0	11.4	18.7	9.6	1.7	1.7
	시각	36.8	22.0	15.0	17.7	5.7	9.3	2.5	1.0
	인테리어	23.5	43.9	19.7	5.0	17.0	0.0	2.5	4.4
	기타전문디자인업	51.1	35.3	30.3	20.5	13.6	0.0	4.9	4.0
규모	9인 이하	38.3	30.9	19.7	13.6	13.1	5.6	2.1	2.3
	10인 이상	33.6	29.1	15.6	17.3	13.2	7.2	6.6	3.5
권역별	서울	40.4	25.8	22.5	13.8	12.3	4.0	4.2	2.2
	경기/인천	26.8	29.7	15.0	10.4	10.3	18.2	0.0	2.0
	대전/충남/충북	49.7	24.9	25.4	0.0	13.3	0.0	0.0	0.0
	광주/전남/전북	31.4	57.4	9.8	13.3	39.8	0.0	0.0	0.0
	대구/경북	54.2	61.5	0.0	33.3	8.4	0.0	0.0	9.2
	부산/울산/경남	15.4	50.9	14.3	28.8	10.3	0.0	0.0	7.1
	강원/제주	75.9	24.1	0.0	0.0	0.0	24.1	0.0	0.0

2. 2014년 1/4분기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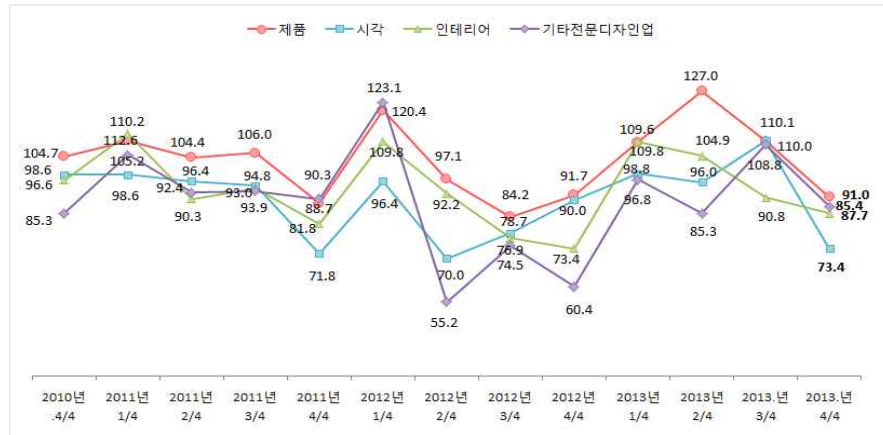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종합



- (경기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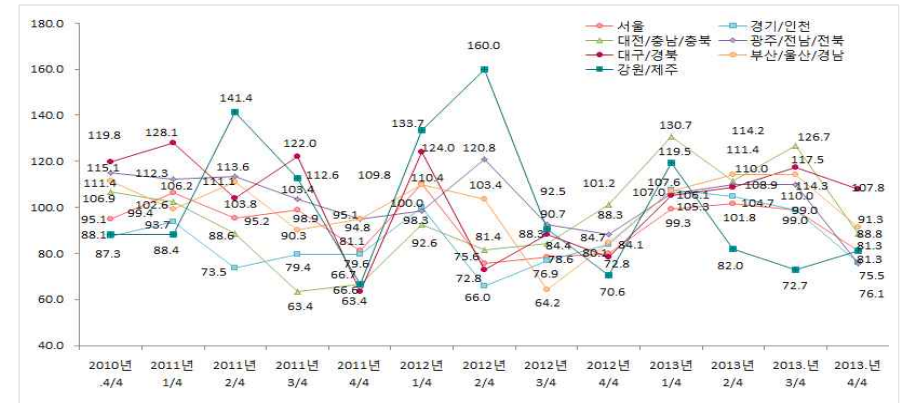
전문디자인업의 2014년 1/4분기 경기전망지수(D-BSI)는 83.0p로 전분기 105.6p보다 22.6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81.7p 대비 1.3p 상승하였음

업종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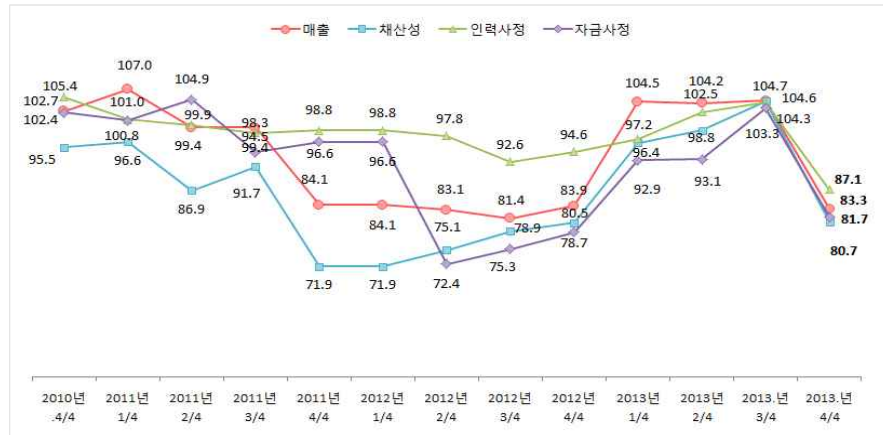
- (제품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은 91.0p로 전분기 110.0p 대비 19.0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1.7p 대비 0.7p 하락하였음
- (시각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은 73.4p로 전분기 110.1p 대비 26.7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0.0p 대비 16.9p 하락하였음
- (인테리어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은 85.4p로 전분기 90.8p 대비 5.4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3.4p 대비 12.0p 상승하였음
- (기타전문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은 87.7p로 전분기 108.8p 대비 21.1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60.4p 대비 27.3p 상승하였음

지역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 (서울권) 서울지역의 경기지수는 81.3p로 전분기 99.0p 대비 17.7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0.1p 대비 1.2p 상승하였음
- (경인권) 경기/인천지역의 경기지수는 76.1p로 전분기 99.0p 대비 22.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4.1p 대비 8.0p 하락하였음
-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지역의 경기지수는 88.8p로 전분기 126.7p 대비 37.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101.2p 대비 12.4p 상승하였음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경기지수는 75.5p로 전분기 110.0p 대비 34.5p 하락하였고, 전년 동분기 88.8p 대비 13.3p 하락하였음
- (대경권) 대구/경북지역의 경기지수는 107.8p로 전분기 117.5p 대비 9.7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8.3p 대비 29.5p 상승하였음
- (부울경권)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기지수는 91.3p로 전분기 114.4p 대비 23.1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4.7p 대비 6.6p 상승하였음
- (기타권) 강원/제주지역의 경기지수는 81.3p로 전분기 72.7p 대비 8.6p 상승했으며, 전년 동분기 70.6p 대비 10.7p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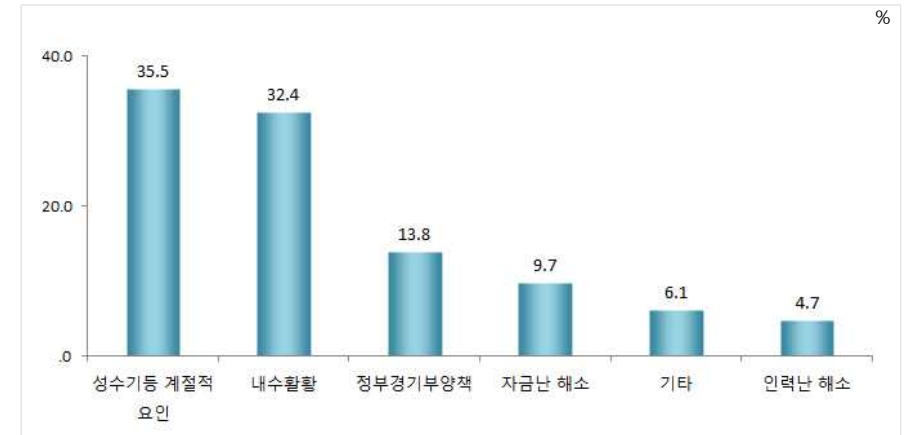
경영부문별 디자인산업 경기 전망



- (매출) 매출지수는 83.3p로 전분기 104.7p 대비 21.4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3.9p 대비 0.6p 하락하였음
- (채산성) 채산성지수는 80.7p로 전분기 104.6p 대비 23.9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80.5p 대비 0.2p 상승하였음
- (인력사정) 인력사정지수는 87.1p로 전분기 104.3p 대비 17.2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94.6p 대비 7.5p 하락하였음
- (자금사정) 자금사정지수는 81.7p로 전분기 103.3p 대비 21.6p 하락했으며, 전년 동분기 78.7p 대비 3.0p 상승하였음

※ 2012년 1분기 이전까지는 마케팅, 재무, 인적자원, 투자에 대한 경기현황을 조사함
2012년 2분기 이후 각각 매출, 채산성, 인력사정, 자금사정으로 조정됨

2014년 1분기 경기전망 호전 이유



- 4분기 경기 호전 전망 이유는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35.5%)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내수활황’ (32.4%), ‘정부경기부양책’ (13.8%), ‘자금난 해소’ (9.7%)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은 제품(84.4%) 업체에서 더욱 높았고, ‘내수활황’은 인테리어디자인(49.6%)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단위:%)

		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	내수활황	정부경기부양책	자금난 해소	기타	인력난 해소
전체		35.5	32.4	13.8	9.7	6.1	4.7
업종	제품	41.2	34.0	12.6	5.5	9.2	0.0
	시각	40.9	22.5	3.7	21.0	3.2	8.6
	인테리어	16.5	49.6	22.3	12.2	5.4	0.0
	기타전문디자인업	36.9	23.0	21.1	0.0	4.5	14.5
규모	9인 이하	31.4	36.2	15.7	7.3	6.3	6.0
	10인 이상	49.8	18.9	7.3	18.3	5.7	0.0
권역별	서울	41.6	28.3	12.5	9.8	2.1	7.8
	경기/인천	45.8	18.5	25.8	0.0	10.0	0.0
	대전/충남/충북	0.0	65.5	30.9	0.0	34.5	0.0
	광주/전남/전북	14.8	30.3	0.0	29.5	25.4	0.0
	대구/경북	7.4	44.9	25.0	15.5	7.2	0.0
	부산/울산/경남	46.4	37.0	0.0	8.3	8.3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2014년 1분기 경기전망 악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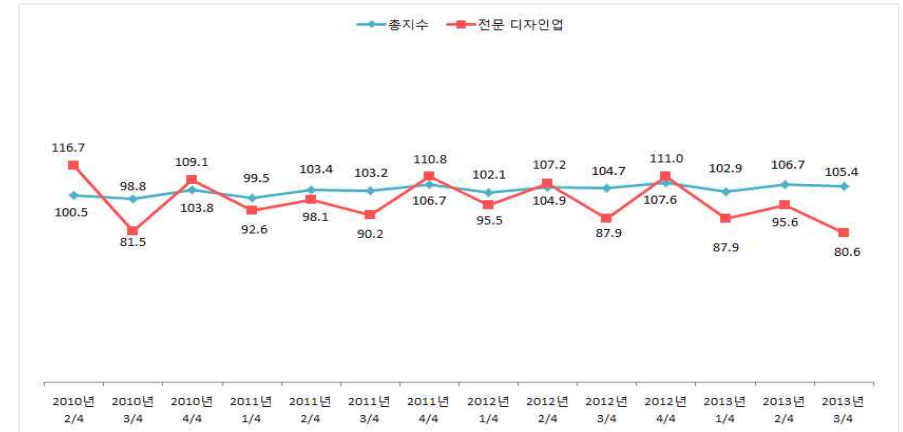
- 1분기 경기 악화 전망 이유로 ‘내수부진’ (37.0%)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29.8%)으로 나타남. 이어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23.3%), ‘경쟁심화’ (12.8%), ‘자금부족’ (12.4%), ‘인건비 상승’ (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기타전문디자인업은 ‘내수부진’ (51.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테리어디자인 업체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43.9%)를 가장 많이 꼽음

(단위:%)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경쟁심화	자금부족	기타	인력난	인건비 상승
전체		37.7	30.7	19.2	14.1	13.1	5.8	2.7	2.4
업종	제품	38.8	28.8	16.0	11.4	18.7	9.6	1.7	1.7
	시각	36.8	22.0	15.0	17.7	5.7	9.3	2.5	1.0
	인테리어	23.5	43.9	19.7	5.0	17.0	.0	2.5	4.4
	기타전문디자인업	51.1	35.3	30.3	20.5	13.6	.0	4.9	4.0
규모	9인 이하	38.3	30.9	19.7	13.6	13.1	5.6	2.1	2.3
	10인 이상	33.6	29.1	15.6	17.3	13.2	7.2	6.6	3.5
권역별	서울	40.4	25.8	22.5	13.8	12.3	4.0	4.2	2.2
	경기/인천	26.8	29.7	15.0	10.4	10.3	18.2	0.0	2.0
	대전/충남/충북	49.7	24.9	25.4	0.0	13.3	0.0	0.0	0.0
	광주/전남/전북	31.4	57.4	9.8	13.3	39.8	0.0	0.0	0.0
	대구/경북	54.2	61.5	0.0	33.3	8.4	0.0	0.0	9.2
	부산/울산/경남	15.4	50.9	14.3	28.8	10.3	0.0	0.0	7.1
강원/제주	75.9	24.1	0.0	0.0	0.0	24.1	0.0	0.0	

4.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 변화 추이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불변지수)



- 2013년 3/4분기 전문디자인업 생산지수는 80.6p로 나타남

전분기 95.6p 대비 15.0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4.7p 대비 23.1p 낮은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105.4p로 전분기(106.7p) 대비 1.3p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분기 104.7p보다 0.9p 높음

※ 2012년 4분기까지 전문디자인업 생산 지수 및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2013년 1분기 부터는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 통계개편(2013.02)’ 으로 인해 전체 지수가 2010년 기준으로 조정됨

■ 서비스업생산지수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핵심지표로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업종의 상대적 중요도인 부가가치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 국가의 경제정책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소의 서비스 동향분석 및 연구자료, GDP 추계 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
출처 : KOSIS

II. 4/4분기 국내·외 디자인업계 주요 이슈

◎ 한영 문화·창조산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지난 11월 6일 오후 5시 20분(현지시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장관 마리아 밀러, DCMS)는 한영 문화·창조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영 수교 130주년을 계기로 창조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 영국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후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

- 한영 창조산업포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혁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지식과 최신 동향 교류를 촉진
 - 양국의 창조산업 분야의 고위 공무원, 산업계·공공기관·학계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제1차 한영 창조산업 포럼은 2014년 하반기에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
- 문화·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의제 채택, 영화·텔레비전·음악·패션·게임·공연예술·시각예술·문학 분야의 우수사례 공유, 우수 정책사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문화·창조산업 기업가들 간의 인적교류도 확대
- 한영 문화·창조산업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성과를 공유하여 문화·창조산업의 국제적 확산 도모, 협력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공동 보고서 기획 및 발간

◎ 2013 서울디자인페스티벌 개최(2013.12.18.~22)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은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디자인, 즉, '나눔 디자인(Sharing Design)'을 주제로 디자이너들의 프로모션과 분야별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다.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빛낸 디자인전문회사

- 페이퍼로(Papero) ; 종이로 만나는 즐거운 세상 (대표 김강국)
 - 2011 서울디자인페스티벌에 참가한 이후 국내 판매와 수출, 해외 박람회, 전시

등에 참여

- 최근 에펠탑과 타워브리지 등을 발표하며 매일 새로운 제품을 출시 중



© www.ipapero.com

- 아물레토(Amuleto); Freedom from the borderline (대표 한경훈)

- 건축, 환경, 제품디자인 등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시각과 관점으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제조 전문 디자인회사



© www.amuleto.co.kr

▲ S-stick : 한 가지 형태의 사용만 가능했던 기존 제품들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제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 브랜드로 차별화된 다양한 스마트 기기 제품들을 개발 중

※ 서울디자인페스티벌

- 1976년부터 국내외 디자인 분야의 메신저 역할을 해 온 월간 <디자인>이 주관하는 디자인 전문 전시회
-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경영 브랜드, 디자인전문회사, 역량 있는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디자인솔루션이 매년 소개되며 디자이너, 마케터, 트렌드 리서치 기관, 문화계 인사, 전공생 등 연간 5만명의 참관객 들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디자인 축제

자료원 : www.designfestival.co.kr

◎ 디자인프로젝트; 스마트 하이웨이

조명과 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조경, 건축, 도시디자인 분야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Studio Roosegaarde(스튜디오 로서하르더)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Heijmans와 협업하여 혁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현실화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스마트 하이웨이’ 이다.

■ 스마트 하이웨이



1. 조명, 노면 표시, 표지판 등의 도로 시설이 교통 환경과 운전자의 상황을 자동 반영하는 시스템

2. 특수한 날씨일 때만 부각돼 드러나는 특수 인광 도로 페인트로 도로 상황을 알려주는 기호 만들

<p>을 갖추고 있고 주변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로 스스로 발광하는 광루미네선스(형광, 인광 등) 물질로 된 페인트를 이용하여 모든 교통표시(차선 및 노면표시, 교통표지판 등) 제작</p>	
<p>3. 도로 가장자리에 전기자동차 전용 차선을 만들고, 지면 아래에는 전자기유도현상으로 고전압을 일으키는 유도코일을 설치해 주행하면서 동시에 충전이 되는 구조</p>	<p>4. 도로 가로등에 센서를 부착해 100m 거리 안에 자동차가 있을 때에만 불이 들어오도록 설계</p>

사진출처 : www.studioroosegaarde.net

최초의 스마트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네덜란드의 브라반트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초 완공 예정에 있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동차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되었었지만 도로 자체의 변화는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을 기대해 볼만 하다.

자료원 : <http://www.globalwindow.org/>

◎ 업사이클디자인, 그 첫 번째 조각

환경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이 지속가능 경제의 해답으로 떠오른 가운데, 에코디자인의 범위 중 재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업사이클(Upcycle) 디자인’ 이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에는 업사이클 전문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함께 모여 ‘한국업사이

클디자인협회(KUD)’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창단식에 이어 14일부터 3일간 업사이클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업사이클, 그 첫 번째 조각’ 전시회도 국내 최초로 개최 되었다.

업사이클 제품을 하나의 디자인이나 브랜드로서의 가치보다는 독특한 소재의 재활용이나 친환경적인 시선으로 접근해왔던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재활용 문화를 전파하고 커뮤니티 구축 및 산업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도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 제품

- 폐현수막으로 만든 제품



- 소방호스, 안전벨트, 카시트 등으로 만든 제품



사진출처 : www.korea.kr

국내 대표적인 업사이클 브랜드에는 래;코드(RE;CODE), 로임(roym), 리블랭크(REBLANK), 세이지디자인(sage design), 에코 파티 메아리(ECO PARTY MEARRY), 터치포굿(Touch4Good), 패브리커(Fabrikr) 등이 있다.

특히 래;코드(RE;CODE)의 경우, 국내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인 코오롱에서 런칭한 업사이클 브랜드로서 그 동안 업사이클 디자인은 소규모 대안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주로 도전해오던 영역임을 비춰볼 때,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회사에서 업사이클 디자인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런칭 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해외 대표 업사이클 브랜드에는 최초의 업사이클 기업인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 (전 세계 350여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연매출 600억 이상의 세계적인 기업), 미국의 ‘솔메이트 삭스’ 등이 있다. 두 브랜드 모두 수작업과 회소성, 내구성 등의 특징을 내세워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고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위스 프라이탁의 가방 제품들

미국 버몬트 '솔메이트 삭스'의 양말 제품들

◎ 기타 주요 이슈

1. 2014년 10월 한국디자인진흥원 부설 미래디자인센터 건립

총사업비 220억원, 1만㎡ 규모로 경남 양산에 들어서며 환경 변화에 대한 기초조사와 트렌드 리서치 등 선제적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 융합, 공존 관점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임

2. 디자인 서바이벌 'K-Design' 방영

우승자에게 총 2억원의 디자인 개발비와 디자인 상용화 기회가 주어짐
차별화된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한 국내 첫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11월 7일~12월 26일까지 8주간 방영됨

3. 국가산업단지 우수디자인 선정제 도입

산업현장의 안정성, 산업 활동의 편의성 등 외관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이 인정된 국가산업단지에 '우수 디자인'(Good Design)이 부여됨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산업단지의 이미지 향상과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생산기능 위주의 낡은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유도해 청년인력 유입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10월 29일, 제1회 세계디자인정책포럼 개최

세계 처음으로 디자인을 정책적으로 다루는 포럼으로, 이탈리아 디자인산업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알레산드로 멘디니, 영국의 소셜디자이너 존 타카라,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여온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디자인을 통한 미래 신가치 창출, 디자인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 디자인과 창의사회 구현 등에 대해 연설과 토론을 진행함

5. 파리 루브르박물관서 '파리 루브르 한국디자인상품전' 개최

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진흥원과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파리 루브르 한국디자인상품전'을 개최함. 이곳에 한국의 독특한 디자인과 우수 기술이 결합한 상품 3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주방기구와 식품, 패션과 뷰티, 스마트 라이프의 세 카테고리도 이뤄짐. 유럽인에게 아직 생소한 원액기, 무체인 하이브리드 기술의 전기자전거 등 호평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명품도시 파리의 심장 루브르에서 한국의 상품과 한류가 접목한 사업으로 국가 이미지가 한 단계 상승될 것으로 기대

6. 정부, 기업 디자인 활용률 2020년 20%대로... '디자인 혁신 2020 프로젝트' 착수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 12%에서 오는 2020년 20%로 끌어올리는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 2020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힘. 산업부는 지난해 말 '21세기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디자인 강국' 비전아래 수립한 '디자인산업융합전략'의 향후 추진 계획을 마련함. 디자인의 '스필 오버(Spill-over)' 전략으로 산업 융합을 활성화하고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개선한다는 구상

Ⅲ. 부록

1. 디자인산업 경기조사 개요

■ 조사설계

모집단	전문디자인업체
표본 수	547업체
표본추출방법	권역/업종/규모별 비례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
표본오차	±4.2%포인트(95%신뢰수준)
주요조사내용	경기전반,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인력사정에 대한 실적 및 차분기 전망 등
조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전화조사 (Telephone Survey)
조사기간	2013년 12월11일 ~ 12월18일

■ 조사목적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 경기조사(D-BSI : Design Business Survey Index)를 통해 산업 경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산업 분야별·지역별·경영부문별 경기 전망 및 실적을 파악하여 전문디자인 업체의 경영전략 수립과 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방법

- 디자인산업 경기조사는 전문디자인업체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기예측기법임
- 조사결과인 디자인산업 경기지수는 아래와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것임

$$\text{BSI}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BSI가 기준치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적음을 나

타입

- 분기별 전문디자인업체 경기조사는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인테리어디자인업, 기타전문디자인업(패션, 섬유, 귀금속 및 장신구 등) 등 총 4개 세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중 568개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

- 표본은 업종과 지역을 고려하여 층화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 가중치는 설계 가중값,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제1층 : 7개 권역(서울/경인/충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호남/강원제주)

※ 제2층 : 4개 업종(시각/제품/인테리어/기타전문디자인업)

※ 제3층 : 2개 규모(9인 이하/10인 이상)

* 층화추출법: 전체의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을 일련의 하위집단들로 층화시킨 다음 각 하위집단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을 뽑아내는 방법

■ 응답업체 특성

BASE: 전체응답자		조사 사례수	가중 사례수	비율(%)
■ 전 체 ■		(547)	(3,982)	100.0
☒ 업 종 별 ☒	제품	(130)	(1,037)	26.0
	시각	(207)	(1,410)	35.4
	인테리어	(119)	(875)	22.0
	*기타전문디자인업	(91)	(660)	16.6
*기타 업종 구분	패션	(12)	(102)	8.1
	섬유	(8)	(61)	67.1
	귀금속 및 장신구	(7)	(54)	9.2
	기타	(64)	(443)	15.5
☒ 규 모 별 ☒	9인 이하	(443)	(3262)	88.9
	10인 이상	(104)	(720)	11.1
☒ 권 역 별 ☒	서울	(304)	(2,491)	62.7
	경기/인천	(83)	(529)	13.3
	대전/충남/충북	(29)	(189)	4.7
	광주/전남/전북	(36)	(203)	5.1
	대구/경북	(33)	(202)	5.1
	부산/울산/경남	(48)	(283)	7.1
	강원/제주	(14)	(85)	2.1

※ 지수 활용상의 유의점

- 디자인산업 경기지수조사에 있어서 매분기 지수는 전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특정분기의 경기 동향은 전분기의 동향과 상호 연관되어 파악하여야 함
- 산업별 동향에 있어서 회담업체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이들의 대표성이 문제되어 동종목의 경기 동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예 : 강원·제주 지역 등)
- 일반적으로 조사표 작성자는 경기회복기에는 경기전망을 낙관적으로 응답하고 후퇴기에는 비관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는 실제보다 낙관적으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 상한 200, 하한 0의 범위 내에서 기준선 100을 갖는 D-BSI의 변동추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어 성격을 편의적으로 정의하여 적용하였음

- ※ 매우호조(D-BSI 150이상)
- ※ 호 조(D-BSI 110이상~150미만)
- ※ 보 합(D-BSI 90이상~110미만)
- ※ 부 진(D-BSI 50이상~90미만)
- ※ 매우부진(D-BSI 50미만)

2. 2013년 4/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전망 조사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2013년 4/4분기 전문디자인업 경기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디자인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조사, 발표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과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이번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 부탁 말씀드리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귀사에서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

1. 우선 기업 일반현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면접원	
-----	--

사업체명			
연락처	지역번호 포함 () -		
업종	① 제품 ② 시각 ③ 인테리어 ④ 기타전문디자인업 <input type="checkbox"/> 패션, <input type="checkbox"/> 섬유, <input type="checkbox"/> 귀금속/장신구,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역(시/도)		종사자수	
기업구분	① 국내기업 ② 외국계기업	응답자	

2. 지금부터 귀사의 2013년 4분기 경기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귀사의 2013년 4분기의 전반적인 경기는 3분기에 비해 어떠했습니다나?

악화	동일	호전
1-----	2-----	3-----

2-1-1. (‘호전’ 응답자) 경기가 호전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내수활황 ② 정부경기부양책 ③ 자금난해소 ④ 성수기등계절적요인
- ⑤ 인력난해소 ⑥ 기타 ()

2-1-2. (‘악화’ 응답자) 경기가 악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① 내수부진 ② 경쟁심화 ③ 불확실한경제상황 ④ 자금부족 ⑤ 비수기등계절적

요인 ⑥ 인력난 ⑦ 인건비상승 ⑧ 기타 ()

2-2. 사업 부문별로 2013년 3분기 대비 2013년 4분기의 경기 실적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악화	동일	호전
1	귀사의 매출 부분의 지난 4분기 경기는 3분기 대비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2	귀사의 순이익과 관련하여 채산성 부분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3	귀사의 부채, 비용, 수익 등 자금사정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4	종업원 수, 인력수급의 용이성 등 인력사정은 어떠했습니까?	①	②	③

3. 지금부터는 2014년 1분기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3-1. 귀사의 2014년 1분기 전반적인 경기는 2013년 4분기에 비해 어떠할 것 같습니다.

악화될 것 같다	동일할 것 같다	호전될 것 같다
1-----	2-----	3-----

3-1-1. (‘호전’ 응답자) 2014년 1분기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수활황 ② 정부경기부양책 ③ 자금난해소 ④ 성수기등계절적요인
⑤ 인력난해소 ⑥ 기타 ()

3-1-2. (‘악화’ 응답자) 2014년 1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수부진 ② 경쟁심화 ③ 불확실한경제상황 ④ 자금부족 ⑤ 비수기등계절적요인
⑥ 인력난 ⑦ 인건비상승 ⑧ 기타 ()

3-1-3. 사업 부문별로 2013년 4분기 대비 2014년 1분기의 경기전망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악화	동일	호전
1	귀사의 매출 부분은 4분기 대비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2	귀사의 순이익과 관련하여 채산성 부분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3	귀사의 부채, 비용, 수익 등 자금사정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4	종업원 수, 인력수급의 용이성 등 인력사정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②	③

3. 디자인산업 경기지수 추이

● 전반적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13 4/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63.2 (105.6)	68.4 (96.0)	68.4 (96.7)	65.2 (81.0)	63.3 (109.4)	62.5 (79.7)	61.2 (79.1)	56.2 (81.7)	59.4 (103.7)	74.2 (103.9)	73.8 (105.6)	67.6 (83.0)	-6.2 (-22.6)
업종	제품	66.2 (110.2)	79.5 (104.4)	72.6 (106.0)	62.9 (88.7)	69.9 (120.4)	66.5 (97.1)	73.4 (84.2)	54.1 (91.7)	56.6 (109.6)	83.5 (127.0)	78.6 (110.0)	60.3 (91.0)	-18.3 (-19.0)
	시각	61.4 (98.6)	63.8 (96.4)	65.4 (94.8)	71.3 (71.8)	63.1 (96.4)	58.0 (70.0)	55.7 (78.7)	69.2 (90.0)	59.3 (98.8)	71.8 (96.0)	74.5 (110.1)	72.7 (73.4)	-1.8 (-36.7)
	인테리어	71.0 (112.6)	67.7 (90.3)	71.5 (93.9)	60.2 (81.8)	61.5 (109.8)	68.6 (92.2)	58.8 (76.9)	50.5 (73.4)	65.9 (109.8)	76.0 (104.9)	68.4 (90.8)	74.7 (85.4)	6.3 (-5.4)
	기타	49.5 (105.2)	65.4 (92.4)	64.6 (93.0)	61.9 (90.3)	56.5 (123.1)	57.4 (55.2)	55.9 (74.5)	40.8 (60.4)	55.3 (96.8)	68.9 (85.3)	71.9 (108.8)	58.7 (87.7)	-13.2 (-21.1)
	지역별	서울	65.7 (106.2)	68.6 (95.2)	68.0 (98.9)	66.7 (81.1)	63.2 (110.4)	62.6 (75.6)	62.8 (78.6)	53.2 (80.1)	58.1 (99.3)	74.8 (101.8)	70.8 (99.0)	64.5 (81.3)
	경기/인천	53.0 (93.7)	51.3 (73.5)	61.0 (79.4)	29.8 (79.6)	45.6 (100.0)	47.9 (66.0)	55.2 (76.9)	63.1 (84.1)	67.7 (107.6)	73.2 (104.7)	61.9 (99.0)	50.6 (76.1)	-11.3 (-22.9)
	대전/충남/충북	50.7 (102.6)	46.0 (88.6)	49.5 (63.4)	48.8 (66.6)	55.1 (92.6)	54.3 (81.4)	52.4 (84.4)	71.1 (101.2)	53.7 (130.7)	49.8 (111.4)	90.0 (126.7)	101.1 (88.8)	11.1 (-37.9)
	광주/전남/전북	35.1 (112.3)	74.0 (113.6)	66.1 (103.4)	87.2 (95.1)	67.8 (98.3)	83.1 (120.8)	52.8 (92.5)	67.2 (88.3)	69.2 (106.1)	83.9 (110.0)	62.5 (110.0)	67.9 (75.5)	5.4 (-34.5)
	대구/경북	83.2 (128.1)	71.6 (103.8)	74.9 (122.0)	74.2 (63.4)	92.5 (124.0)	61.2 (72.8)	55.0 (88.3)	60.1 (78.3)	33.9 (105.3)	64.8 (108.9)	82.5 (117.5)	83.2 (107.8)	0.7 (-9.7)
	부산/울산/경남	63.7 (99.4)	90.8 (111.1)	77.7 (90.3)	83.7 (94.8)	67.7 (109.8)	73.3 (103.4)	61.5 (64.2)	42.2 (84.7)	67.3 (107.0)	81.6 (114.2)	90.5 (114.3)	82.7 (91.3)	-7.8 (-23.0)
	강원/제주	89.7 (88.4)	109.0 (141.4)	119.8 (112.6)	95.2 (66.7)	65.3 (133.7)	95.6 (160.0)	87.4 (90.7)	81.8 (70.6)	79.3 (119.5)	88.9 (82.0)	90.9 (72.7)	101.2 (81.3)	10.3 (8.6)
부문별	매출	68.1 (107.0)	76.1 (99.4)	76.3 (99.4)	76.6 (84.1)	69.2 (84.1)	64.1 (83.1)	67.1 (81.4)	65.0 (83.9)	58.6 (104.5)	81.1 (104.2)	75.7 (104.7)	74.8 (83.3)	-0.9 (-21.4)
	채산성	60.0 (96.6)	68.4 (86.9)	60.4 (91.7)	61.8 (71.9)	60.3 (75.1)	56.1 (78.9)	61.1 (80.5)	62.3 (96.4)	53.0 (98.8)	72.0 (104.6)	75.1 (104.6)	67.2 (80.7)	-7.9 (-23.9)
	인력사정	87.8 (101.0)	94.3 (99.9)	88.0 (98.3)	90.7 (98.8)	88.4 (97.8)	86.2 (92.6)	81.6 (94.6)	79.2 (97.2)	81.9 (102.5)	93.3 (104.3)	82.6 (87.1)	77.0 (87.1)	-5.6 (-17.2)
	자금사정	85.8 (100.8)	93.8 (104.9)	86.7 (94.5)	87.4 (96.6)	85.5 (72.4)	58.7 (75.3)	59.5 (78.7)	61.1 (92.9)	59.6 (93.1)	65.7 (103.3)	73.7 (81.7)	67.4 (81.7)	-6.3 (-21.6)

()는 전망치

● 매출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13 4/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68.1 (107.0)	76.1 (99.4)	76.3 (99.4)	76.6 (84.1)	69.2 -	64.1 (83.1)	67.1 (81.4)	65.0 (83.9)	58.6 (104.5)	81.1 (104.2)	75.7 (104.7)	74.8 (83.3)	-0.9 (-21.4)
별 업 종 류	제품	72.5 (112.7)	88.9 (107.7)	72.0 (110.8)	80.0 (95.1)	82.4 -	65.6 (99.4)	80.6 (83.9)	63.0 (88.5)	56.4 (109.4)	89.8 (119.6)	72.9 (107.1)	72.5 (88.5)	-0.4 (-18.6)
	시각	64.3 (102.2)	69.8 (97.1)	70.4 (91.9)	79.5 (77.9)	63.1 -	61.1 (79.0)	59.5 (83.2)	75.8 (90.3)	58.2 (98.5)	80.4 (97.3)	77.1 (110.6)	77.9 (73.0)	0.8 (-37.6)
	인테리어	76.5 (108.6)	70.6 (98.0)	89.5 (104.3)	69.8 (81.8)	65.6 -	69.8 (87.9)	65.2 (78.4)	53.9 (76.8)	61.9 (108.8)	85.1 (112.9)	73.0 (92.3)	82.1 (92.3)	9.1 (0.0)
	기타	56.9 (108.8)	83.9 (95.2)	75.1 (93.5)	75.2 (85.9)	69.5 -	59.6 (59.6)	63.6 (78.0)	61.4 (73.7)	58.3 (104.2)	63.6 (86.2)	80.7 (104.4)	62.3 (85.2)	-18.4 (-19.2)
지 역 별	서울	70.7 (108.7)	77.4 (97.6)	77.2 (103.5)	77.2 (83.2)	67.6 -	64.1 (80.1)	68.6 (81.2)	64.4 (82.9)	56.9 (100.7)	79.2 (103.4)	74.0 (100.6)	72.6 (81.4)	-1.4 (-19.2)
	경기/인천	56.8 (93.5)	54.2 (82.4)	58.7 (86.9)	55.1 (88.8)	54.7 -	55.6 (63.9)	63.5 (78.7)	65.0 (82.7)	67.7 (112.9)	81.9 (94.1)	68.0 (93.8)	60.8 (73.2)	-7.2 (-20.6)
	대전/충남/충북	59.1 (98.1)	56.2 (73.9)	51.3 (67.5)	61.1 (66.9)	64.7 -	60.5 (68.2)	56.8 (85.8)	71.1 (101.2)	46.1 (117.2)	73.3 (98.0)	100.0 (123.3)	97.7 (89.3)	-2.3 (-34.0)
	광주/전남/전북	45.6 (107.6)	82.3 (117.0)	90.4 (108.2)	97.1 (99.5)	75.3 -	79.2 (120.8)	63.8 (89.2)	74.3 (90.6)	70.7 (107.4)	93.7 (106.4)	67.5 (112.5)	66.3 (75.1)	-1.2 (-37.4)
	대구/경북	82.9 (124.0)	74.2 (103.1)	77.5 (97.9)	72.7 (65.6)	96.5 -	58.7 (80.1)	71.9 (92.5)	69.3 (81.6)	32.4 (102.0)	76.5 (102.3)	82.5 (115.0)	87.9 (100.6)	5.4 (-14.4)
	부산/울산/경남	71.3 (105.0)	98.2 (126.0)	87.5 (94.5)	94.4 (100.6)	78.2 -	76.1 (117.0)	58.6 (68.2)	48.9 (93.2)	67.2 (109.8)	93.5 (129.2)	90.5 (109.5)	98.1 (97.3)	7.6 (-12.2)
	강원/제주	83.1 (96.9)	119.7 (162.7)	106.4 (93.6)	95.2 (61.4)	79.6 -	66.7 (160.0)	84.8 (95.3)	86.7 (62.4)	90.0 (119.5)	86.2 (122.5)	81.8 (72.7)	88.5 (93.2)	6.7 (20.5)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마케팅 경기로 조사됨

● 채산성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13 4/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60.0 (96.6)	68.4 (86.9)	60.4 (91.7)	61.8 (71.9)	60.3 -	56.1 (75.1)	61.1 (78.9)	62.3 (80.5)	53.0 (96.4)	72.0 (98.8)	75.1 (104.6)	67.2 (80.7)	-7.9 (-23.9)
별 업 종 류	제품	65.7 (96.8)	80.8 (97.1)	62.2 (104.1)	63.0 (82.9)	66.5 -	60.1 (89.4)	70.4 (81.0)	58.4 (83.6)	48.8 (104.6)	79.9 (113.5)	72.9 (108.6)	69.7 (89.3)	-3.2 (-19.3)
	시각	56.1 (91.2)	59.1 (80.4)	60.8 (85.7)	65.1 (64.4)	57.7 -	58.8 (70.8)	56.0 (80.5)	72.6 (89.3)	53.1 (92.4)	72.8 (91.5)	76.6 (110.1)	68.4 (70.9)	-8.2 (-39.2)
	인테리어	67.2 (107.8)	70.4 (86.5)	61.4 (93.1)	55.0 (64.9)	58.1 -	54.0 (80.1)	61.0 (75.7)	54.6 (71.3)	56.5 (99.6)	74.7 (105.0)	70.9 (92.3)	67.5 (83.5)	-3.4 (-8.8)
	기타	49.2 (91.2)	71.6 (89.8)	54.8 (86.6)	63.0 (84.4)	60.9 -	46.4 (55.6)	56.7 (76.4)	58.1 (70.4)	54.7 (87.5)	58.1 (83.8)	80.7 (102.6)	60.5 (84.6)	-20.2 (-18.0)
지 역 별	서울	61.5 (101.6)	69.5 (85.2)	58.8 (95.7)	63.7 (72.1)	59.3 -	59.1 (74.7)	63.2 (79.5)	61.3 (80.0)	52.2 (94.1)	70.3 (98.2)	74.0 (100.3)	64.1 (77.6)	-9.9 (-22.7)
	경기/인천	50.2 (81.2)	51.6 (80.0)	47.2 (68.8)	38.4 (74.9)	46.5 -	34.5 (54.5)	54.8 (75.9)	65.9 (82.9)	57.5 (108.0)	77.6 (83.2)	62.9 (92.8)	54.4 (76.5)	-8.5 (-16.3)
	대전/충남/충북	42.1 (70.7)	46.7 (60.6)	39.6 (65.0)	40.8 (48.8)	69.1 -	43.4 (66.7)	46.9 (69.8)	68.8 (92.5)	46.1 (103.6)	62.6 (98.0)	100.0 (123.3)	89.6 (89.3)	-10.4 (-34.0)
	광주/전남/전북	41.5 (87.2)	80.4 (94.3)	79.9 (102.4)	88.5 (87.5)	69.0 -	73.4 (90.9)	54.1 (97.2)	78.7 (73.7)	60.9 (104.5)	75.5 (95.1)	67.5 (112.5)	52.0 (72.0)	-15.5 (-40.5)
	대구/경북	75.1 (117.0)	66.2 (94.6)	70.1 (113.2)	73.0 (50.1)	88.0 -	51.9 (73.8)	67.0 (92.5)	57.5 (81.9)	38.6 (85.3)	71.5 (108.6)	82.5 (115.0)	97.1 (106.0)	14.6 (-9.0)
	부산/울산/경남	63.1 (78.8)	83.6 (103.0)	81.5 (75.1)	60.0 (86.1)	51.9 -	71.0 (98.3)	55.3 (64.6)	45.2 (88.8)	59.1 (82.9)	79.3 (121.4)	90.5 (109.5)	85.7 (95.1)	-4.8 (-14.4)
	강원/제주	106.9 (90.2)	100.1 (142.1)	58.2 (93.6)	67.2 (47.6)	56.1 -	42.2 (148.9)	78.8 (75.5)	86.7 (54.7)	62.8 (119.5)	76.0 (122.5)	81.8 (72.7)	95.3 (93.2)	13.5 (20.5)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재무 부분으로 조사됨

● 인력사정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13 4/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87.8 (101.0)	94.3 (99.9)	88.0 (98.3)	90.7 (98.8)	88.4 -	86.2 (97.8)	81.6 (92.6)	79.2 (94.6)	81.9 (97.2)	93.3 (102.5)	82.6 (104.3)	77.0 (87.1)	-5.6 (-17.2)
별 역 분	제품	96.9 (105.1)	99.0 (103.7)	86.2 (101.0)	88.1 (107.8)	93.3 -	92.3 (102.9)	84.2 (93.0)	69.5 (90.0)	83.2 (98.0)	96.2 (108.7)	77.1 (111.4)	73.9 (94.1)	-3.2 (-17.3)
	시각	89.0 (100.8)	90.3 (99.8)	92.0 (94.7)	88.3 (94.2)	86.0 -	83.1 (97.1)	76.1 (87.4)	81.5 (97.3)	84.0 (94.7)	90.1 (177.0)	84.6 (107.4)	71.2 (75.8)	-13.4 (-31.6)
	인테리어	81.2 (102.4)	91.6 (94.4)	88.5 (101.2)	90.6 (93.0)	88.1 -	80.8 (95.0)	77.6 (94.2)	75.4 (93.6)	80.2 (99.5)	175.0 (115.6)	79.6 (91.3)	80.0 (89.2)	0.4 (-2.1)
	기타	82.6 (92.7)	102.5 (104.2)	79.5 (98.6)	100.4 (105.1)	86.6 -	93.0 (95.6)	94.2 (100.2)	95.0 (97.9)	77.7 (98.2)	92.9 (104.9)	91.2 (103.5)	90.0 (97.8)	-1.2 (-5.7)
지 역 별	서울	86.6 (102.0)	95.3 (97.8)	86.6 (100.0)	91.1 (97.1)	87.7 -	86.9 (98.5)	82.2 (94.0)	79.8 (94.6)	80.1 (94.0)	92.4 (105.3)	83.4 (101.6)	76.7 (86.6)	-6.7 (-15.0)
	경기/인천	90.4 (91.4)	83.4 (91.4)	73.7 (94.0)	77.1 (99.9)	83.9 -	76.5 (81.8)	84.2 (93.4)	76.7 (94.8)	88.3 (95.3)	90.6 (99.7)	79.4 (95.9)	64.8 (78.2)	-14.6 (-17.7)
	대전/충남/충북	68.8 (88.2)	93.8 (97.9)	78.5 (70.9)	99.5 (108.6)	87.5 -	77.5 (81.4)	72.8 (80.5)	74.7 (102.1)	83.4 (107.8)	94.5 (96.5)	96.7 (106.7)	95.6 (89.2)	-1.1 (-17.5)
	광주/전남/전북	87.9 (96.7)	91.9 (111.6)	110.9 (99.7)	85.7 (105.6)	83.3 -	81.8 (109.1)	77.4 (83.6)	92.7 (101.6)	78.1 (92.6)	97.2 (94.5)	77.5 (110.0)	65.6 (79.7)	-11.9 (-30.3)
	대구/경북	101.2 (105.0)	81.7 (92.1)	100.5 (105.8)	101.9 (95.9)	97.5 -	100.0 (102.4)	76.0 (96.6)	72.3 (85.8)	85.2 (106.4)	92.0 (96.5)	87.5 (102.4)	85.0 (99.5)	-2.5 (-2.9)
	부산/울산/경남	92.3 (114.6)	110.1 (129.5)	94.3 (97.4)	97.2 (107.8)	91.7 -	92.6 (114.2)	78.1 (88.2)	70.8 (103.8)	80.4 (105.2)	100.9 (102.7)	78.6 (102.4)	88.5 (101.9)	9.9 (-0.5)
	강원/제주	91.7 (106.7)	120.7 (120.4)	100.0 (100.0)	99.2 (81.0)	105.1 -	86.7 (117.8)	99.8 (95.2)	95.6 (72.1)	95.2 (135.4)	100.0 (83.3)	100.0 (109.1)	89.4 (93.2)	-10.6 (-15.9)

● 자금사정

		11 1/4	11 2/4	11 3/4	11 4/4	12 1/4	12 2/4	12 3/4	12 4/4	13 1/4	13 2/4	13 3/4	13 4/4	전분기 대비 변동폭
전체		85.8 (100.8)	93.8 (104.9)	86.7 (94.5)	87.4 (96.6)	85.5 -	58.7 (72.4)	59.5 (75.3)	61.1 (78.7)	59.6 (92.9)	65.7 (93.1)	73.7 (103.3)	67.4 (81.7)	-6.3 (-21.6)
별 역 분	제품	94.6 (106.7)	100.5 (114.0)	85.2 (98.7)	94.8 (109.7)	94.1 -	66.0 (82.1)	70.5 (78.4)	56.3 (85.3)	56.8 (97.4)	69.7 (170.8)	68.6 (105.7)	67.8 (89.6)	-0.8 (-16.1)
	시각	88.5 (101.7)	91.4 (99.2)	84.1 (87.2)	85.6 (90.5)	81.3 -	56.4 (68.2)	48.9 (75.7)	71.1 (85.1)	60.0 (88.8)	63.5 (164.2)	76.1 (111.2)	70.3 (72.5)	-5.8 (-38.7)
	인테리어	77.9 (101.1)	88.9 (105.7)	94.7 (104.5)	80.4 (86.9)	81.2 -	55.9 (73.8)	54.2 (71.5)	51.1 (71.2)	64.1 (98.5)	70.3 (156.2)	69.9 (90.3)	69.1 (84.4)	-0.8 (-5.9)
	기타	79.0 (88.8)	98.9 (105.4)	81.9 (90.0)	91.1 (106.9)	89.2 -	57.6 (65.3)	70.6 (74.6)	62.3 (65.4)	57.3 (87.2)	62.4 (88.2)	81.6 (100.0)	58.3 (85.4)	-23.3 (-14.6)
지 역 별	서울	84.4 (100.7)	93.6 (103.9)	88.8 (96.7)	85.7 (92.2)	86.3 -	60.3 (72.0)	62.3 (76.1)	60.6 (78.6)	60.3 (90.6)	66.5 (90.6)	72.7 (99.0)	65.3 (79.2)	-7.4 (-19.8)
	경기/인천	75.4 (93.4)	93.2 (94.5)	55.7 (87.0)	81.9 (105.2)	83.6 -	40.6 (63.4)	51.9 (68.9)	67.7 (74.2)	55.0 (99.8)	60.8 (87.6)	61.9 (88.7)	49.6 (75.3)	-12.3 (-13.4)
	대전/충남/충북	78.9 (95.5)	99.9 (113.1)	62.1 (69.7)	87.9 (96.3)	80.1 -	60.5 (64.3)	53.2 (75.5)	65.6 (98.6)	60.2 (99.2)	44.8 (90.9)	93.3 (130.0)	93.8 (89.3)	0.5 (-40.7)
	광주/전남/전북	80.9 (105.0)	89.8 (110.9)	95.5 (97.1)	92.7 (116.1)	82.8 -	69.5 (89.6)	59.1 (89.0)	67.4 (75.9)	72.4 (105.6)	70.2 (92.4)	67.5 (110.0)	51.9 (70.4)	-15.6 (-39.6)
	대구/경북	102.9 (116.8)	88.8 (105.3)	112.4 (97.8)	93.3 (96.4)	86.0 -	67.5 (70.4)	62.1 (78.0)	49.1 (82.1)	49.0 (80.3)	63.9 (103.1)	85.0 (115.0)	90.3 (106.3)	5.3 (-8.7)
	부산/울산/경남	104.6 (102.0)	99.7 (117.9)	93.0 (96.0)	102.9 (111.2)	82.7 -	61.9 (79.0)	47.6 (63.6)	48.3 (82.5)	55.5 (82.8)	75.3 (119.6)	90.5 (109.5)	87.6 (98.3)	-2.9 (-11.2)
강원/제주	108.5 (88.2)	100.0 (120.4)	100.0 (93.3)	79.6 (71.2)	92.9 -	51.1 (117.8)	64.7 (88.1)	85.0 (59.6)	70.9 (127.9)	78.8 (94.1)	90.9 (72.7)	95.3 (93.2)	4.4 (20.5)	

()내는 전망치

2012년 1/4분기까지는 인적자원관리로 조사됨

4. 산업일반 통계자료

● 제조업 업황 BSI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전월대비
업	황	80 (81)	79 (82)	72 (78)	73 (73)	75 (77)	81 (82)	78 (83)	76 (78)	-2 (79)	+1 (+1)
	계절조정	75 (75)	76 (78)	72 (76)	75 (74)	78 (78)	83 (82)	80 (86)	78 (82)	-2 (84)	+2 (+2)
대기업	업	83 (82)	82 (83)	75 (81)	76 (76)	78 (80)	85 (83)	82 (86)	79 (81)	-3 (82)	+1 (+1)
	중소기업	76 (79)	75 (80)	69 (75)	70 (70)	72 (73)	76 (80)	74 (79)	72 (74)	-2 (76)	+2 (+2)
수출기업	업	86 (86)	85 (89)	78 (86)	79 (80)	82 (82)	86 (86)	78 (86)	77 (75)	-1 (84)	+9 (+9)
	내수기업	75 (78)	75 (77)	69 (73)	70 (69)	71 (74)	78 (79)	79 (81)	75 (79)	-4 (76)	-3 (-3)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출처 : 한국은행

● 비제조업 업황 BSI

		'13.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1월	전월대비
업	황	67 (72)	69 (69)	67 (69)	67 (67)	70 (70)	69 (72)	70 (70)	70 (72)	0 (70)	-2 (-2)
	계절조정	64 (66)	67 (67)	67 (67)	70 (69)	71 (70)	69 (74)	72 (71)	69 (73)	-3 (73)	0 (0)
매출		76 (82)	76 (78)	78 (75)	77 (78)	78 (78)	76 (80)	79 (79)	77 (80)	-2 (78)	-2 (-2)
채산성		81 (82)	80 (82)	79 (79)	80 (79)	81 (82)	80 (83)	78 (81)	81 (82)	+3 (80)	-2 (-2)
자금사정		79 (83)	81 (81)	82 (80)	79 (81)	81 (80)	78 (81)	80 (79)	80 (81)	0 (80)	-1 (-1)
인력사정		86 (85)	88 (87)	85 (89)	87 (86)	88 (87)	86 (89)	85 (87)	85 (87)	0 (86)	-1 (-1)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출처 : 한국은행

2013년 4/4분기 디자인산업 동향브리프

vol.14

발행인 이태용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총괄책임 손동범
 발간기획 이동현
 발간진행 서설옥
 발행일 2014년 1월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 및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전략연구실 정책연구팀
 031-780-2098, gexample@kidp.or.kr